

지역 소식

헬핑핸즈, 수해 극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 내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도중 덮친 기록적인 폭우에 헬핑핸즈가 나섰다



최 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헬핑핸즈 서울 동센터와 청주 센터는 침수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을 돕고,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수해 극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을 위로했다.

헬핑핸즈 청주 센터, 충주시 수해 복구 활동 '구슬땀'

지난 8월 2일, 충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0mm의 집중 호우가 내려 인명 사고, 산사태로 인한 가옥 매몰, 제방 및 도로 유실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청주 스테이크 헬핑핸즈 위원회는 수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한편, 피해 지역의 행정관서에

연락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선받았다.

15일 오전부터 천안, 청주, 제천, 충주 등에서 온 50여 명의 헬핑핸즈 자원봉사자들이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원에 모였다. 주로 청소년 및 그동안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활동 청년들로 구성된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무너져 내린 길에 흙을 채우고, 막힌 배수로를 뚫고, 가옥으로 흘러들어온 토사를 치우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수해 복구 작업은 주로 삽질, 수레로 흙 나르기, 흙 마대 쌓기 등 매우 고된 작업이었지만, 봉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옷이 비와 땀으로 흠뻑 젖고, 흙으로 지저분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섰다.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의 고1 청남 최정후 형제는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침수 피해 상황이 심각해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니 오히려 기쁘고 신나게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하나 되어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움을 받은 농원 주인은 "엄청난 수해를 입어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타인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열심히 도와주는 헬핑핸즈의 봉사 덕분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며 "농원을 다시 예전처럼 가꾸어 보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헬핑핸즈 청주 센터는 수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으로 쌀 400kg(120만원 상당)을 충주시 엄정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우철 청주 스테이크 회장은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봉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지역 사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헬핑핸즈 서울 동 센터, 양주시 수해 지역에 구호 물품 전달

지난 8월 10일 오후, 경기도 양주 지역에 시간당 100mm가량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양주역이 물에 잠기고, 양주역 인근 도로 및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독거 노인 가구를 포함한 5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양주시 침수 피해 뉴스를 접한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단은 우선 스테이크 회원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헬핑핸즈 위원회는 가평, 구리, 남양주, 구리, 양주, 의정부, 포천 지역 공무원과 연락을 취해 관할 지역의 자세한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주시에 가장 큰 침수 피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수해 지역 지원에 나섰다.

헬핑핸즈 위원회는 북 아시아 지역의 지원을 받아 이재민을 위한 이불 세트와 라면, 그리고 수해 복구 활동 동안 봉사자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반 조리 식품 등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헬핑핸즈의 구호 활동 소식을 전해 들은 서울 동 스테이크 회원들은 대형마트에서 라면 및 반 조리 식품 구입에 자원하거나, 구호 물품 배송에 자원했으며, 그 외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헬핑핸즈 위원회의 신속한 구호 노력과 교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반나절 만에 6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이 모였으며, 헬핑핸즈 동 센터는 트럭 두 대와 승합차 한 대에 구호 물품을 나눠 싣고 양주 시청 자원봉사 센터에 전달했다.

부모님과 함께 물품 구입에 참여한 서울 동 스테이크 교민 와드의 한 초동회 어린이는 봉사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나누었다. "아빠와 마트에서 카트 여러 대에 음식을 가득 싣고 계산대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계산원 분께 양주에 비가 많이 와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환하게 웃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최일광 회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헬핑핸즈가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들 역시 헬핑핸즈에 자부심을 느끼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호 물품을 전달받은 박종성 양주시 자원봉사 센터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 중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염려가 많습니다. 헬핑핸즈에서 제공해 주신 귀한 물품들을 수해를 입은 분들께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

1900년 10월, 조지 큐 캐논 회장이 연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한국(Corea)을 언급하다



제공: 안민아 1세대

1830년, 교회를 회복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생전에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덮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이후, 선지자들은 세상이라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언제부터 한국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게 되었을까? 여기서 19세기의 마지막 연차 대회였던 1900년 10월 연차 대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900년 10월 반연차 대회는 로렌조 스노우 교회 회장의 감리로 10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7일, 오전 10시 모임에 이어 오후 2시 모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서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시온의 구축과 성도들의 운명에 관해 말씀했다.

두 번째 연사로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조지 큐 캐논 회장이 나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것을 준비함에 대해 언급한 뒤, 끝 무렵에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씀했다.

“장로들이 일본에 들어갈 때가 되었으면, 일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한국과 만주, 중국에서도 문이 열릴 것이며,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병사들처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선지자가 연차 대회에서 최초로 한국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일본과 이웃한 한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preached to the people. If the time has come for Elders to go to Japan, let Japan be penetrated. After a while perhaps an opening may be made in **Corea**, and in Manchuria, and in China, and these lands be penetrated by the Elders with this message of salvation, as soldiers of Christ. Our young men go to the Philippines and to Cuba, and they have been willing to lay down their lives for their country. Young men from this State have done so, and have

연차 대회에서 한국이 처음 언급된 부분, 대회보고 88쪽

조선의 고종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대한제국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을 비롯해 여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문호가 서로 개방되었으나, 종교의 자유는 아직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1884년 9월에는 미국 북장로회의 알렌, 1885년 봄에는 미국 감리회의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북장로회의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아닌 의사 또는 교사 자격으로 입국하여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1장 미국의 한반도 진출 참조)

1901년 9월 1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는 일본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 요코하마에서 일본을 복음 전도지로 헌납했다.

이 땅에 회복된 복음의 문이 열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원의 주인이 땅에 거름을 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주인의 종들은 포도원의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가라는 속삭임을 받고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종이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이르되, … 이는 주인의 포도원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척박한 곳이었음이니이다 …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 나도 이 곳이 척박한 땅인 줄 알았노라. 그러므로 … 내가 이 오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길렀다 하였노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네가 보느니라”(야곱서 5:21~22) ■

주

1. 제일회장단: <https://history.churchofjesuschrist.org/exhibit/george-q-cannon-a-mighty-instrument?lang=eng#mv4>
2. 한국 언급 페이지 : <https://archive.org/details/conferencereport1900sa/page/68/mode/2up?q=corea>

기사 작성: 김대연 형제 (역사위원회, 전문가), adrianme@naver.com, 010-3764-6277

요약된 본 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kr.churchofjesuschrist.org/article/2020-07-the-church-history-in-korea?lang=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1. 위 기사와 관련해 의견 또는 정보가 있으신 분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교회 생활과 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
3. 역사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

비대면 시대의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학교, 직장 등의 각종 모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교회 모임 역시 우리에게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중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도 온라인 수업 방식이 정착되어 진행 중이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코디네이터인 백길환 형제는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온라인 수업 방식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사 훈련 모임은 지역별 온라인 모임으로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시범적으로 진행되던 온라인 수업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나더라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방식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점에 집중하며

현재 세미나리에 참여 중인 청소년들은 대면으로 진행되던 매일반과 가정학습반 대신, 전면 온라인으로 매일 혹은 매주 1회씩 수업을 듣고 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세미나리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순천과 광양 지역 세미나리 교사인 순천 지부의 김미경 자매는 그 동안 자신의 차로 학생들을 일일이 태우고 다니거나 외진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서 일대일로 가르쳐야 했다. “지금은 언제든지 휴대폰만 꺼면 반가운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그동안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년들(18~30세)도,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수업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 스테이크 전다정 자매는 “이제 종교 교육원은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휴대폰을 켜기만 하면 그곳에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혹은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던 반가운 분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교사 훈련 모임

기존 교사 훈련 모임은 일반적으로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번씩 진행되었다. 이제는 매주 온라인 교사 훈련 모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코디네이터와 교사가 일대일 온라인 토론을 하고 있다.

먼 곳에 살고 있는 교사들은 그동안 대면 훈련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치렀던 긴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모임에 쉽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자주 만나면서 서로 수업 운영의 현황과 고충을 공유하고, 일대일 모임을 통해 심도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수업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의 소망과 열의에는 변함이 없다.

세미나리 교사 김미경 자매는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라고 전한다.

종교 교육원 수강생인 대전 스테이크의 이현재 형제는 수업 방식보다는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간증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종교 교육원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의 신앙이 강해짐을 느낍니다.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



대면·온라인·모임·종교·교육원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3명



윤동주 자매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서울 선교부



윤호정 장로
창원 스테이크
마산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최제서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회장: 오승용 형제(전임: 한민근 형제)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회장: 천무철 형제(전임: 이병만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서울 남 스테이크 회장: 강중훈 형제
(전임: 권영준 형제)

제1보좌: 김현승 형제

제2보좌: 박종배 형제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 감독: 이창헌 형제(전임: 김동의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